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12일 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40호

한민전과 한국민중의 반미반부시투쟁 지지

3대륙인민단결기구 총서기 담화발표 - 주체91 2월 18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후안 카레테로 이바네스 서기장은 2002년 2월18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호소문과 투쟁구호, 백서를 발표하여 부시미행정부의 노골화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책동과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범죄행위를 준열히 단죄규탄하고 전체 한국민중이 반미, 반부시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각지에서는 부시의 ≪악의 축≫망언과 범죄적인 서울행각을 반대하는 격렬한 반미, 반부시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나는 한민전과 한국민중의 반미, 반부시투쟁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에 대한 굳건한 의지의 분출이라고 인정하면서 이에 전적인 지지성원을 보낸다.

반세기이상이나 분단과 상실의 아픔을 강요하고도 모자라 모처럼 마련된 민족화해와 단합에 걸음마다 찬물을 끼얹는 미국에 대한 조선민족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이 마당에 온 민족을 저들의 패권전쟁의 희생물로까지 만들려드니 어찌 그들이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은 지정학적 핵심지역인 한반도에서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어 화해와 통일로 나가는 것이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실행에 결정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어떻게 하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대결과 전쟁의 불꽃을 튕기려 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삼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패권정책의 한반도판이 바로 부시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북침전쟁책동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심히 오산하고 있다.

미국호전광들이 감히 조선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백전백승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무적의 강군인 조선인민군에 의해 쓰디쓴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높이 치켜들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길에 떨쳐나선 한국민중 또한 한반도를 또다시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호전광들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의 태양을 높이 모시고 새 세기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7천만 조선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발악적 준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기어이 실행할 것이며 가까운 앞날에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우뚝 일떠세울 것이다.

미국은 시대에 역행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한반도영구분열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한국에서 침략군과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하며 조선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진군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나는 전세계 반제자주역량과 평화애호적 민중들이 패권에 눈이 어두워 세계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전횡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견결히 대항해 나서며 6.15공동선언이행에 떨쳐나선 조선민족의 통일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줌으로써 반제자주위업과 세계평화위업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지지 담화

1 3대륙인민 단결기구, 한민전과 한국민중의 반미반부시투쟁 지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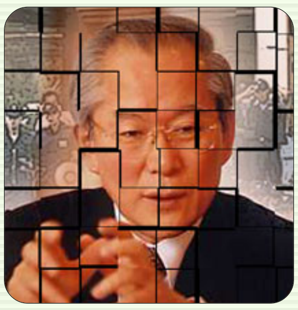
2 서부독일 여류작가 루이저 린저와 한 담화

세기와 더불어

4 4장 3절 카륜회의 (1)

칭송

6 바닷가초소에서 (1)
6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헌시
6 유리공예품 ≪학≫



한국민족민주전선

7 한나라당이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7 구국의 소리 뉴스 - 주체91, 3월 10일
8 북침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
8 부정비리는 근절될 수 없는 한국적 병폐

광고

15 구국전선 제471호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 3월 10일 보도
10 우리사상제일주의 - 공동사설 해설 1월 19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광범한 대중이 사회주의 주체로 역할을 높이도록 조직영도

아리랑뉴스

12 부시정부의 핵정책 모순
12 부시, 2단계 대테러전쟁 진입
12 미 핵태세보고서, 그리고 북미관계
13 조계사 발전노조 가족들의 2시간의 만남과 이별
13 발전노조원 49명 징계해임 확정
13 교수노조, 민주노총 가입
14 한총련 합법화 위한 움직임 활발
14 테러방지법 졸속처리 움직임

운동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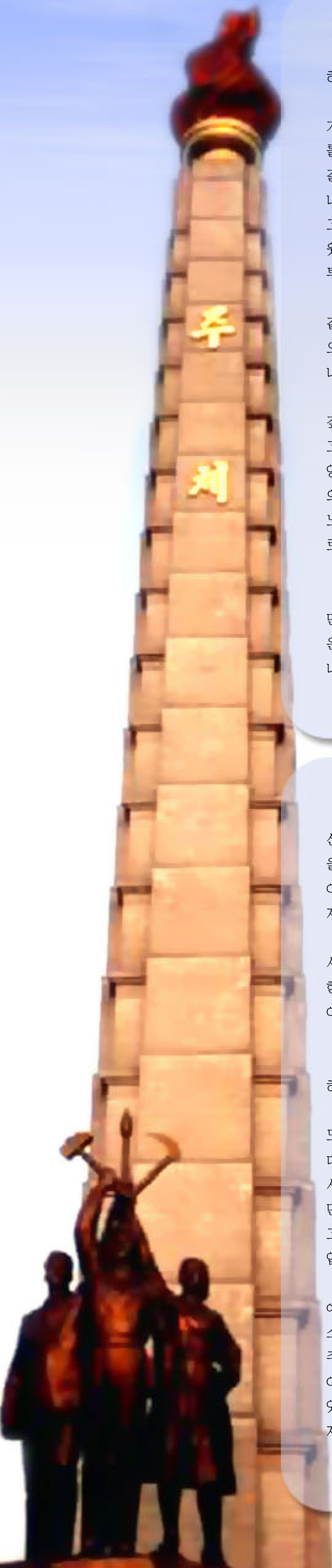
15 반전반미투쟁과 6.15실천투쟁의 결합에 대하여 (3)

조국통일3대헌장

16 90년대 통일을 위한 전민족단합의 대헌장 (3)

서부독일 여류작가 루이저 린저와 한 담화

주체69(1980)년 5월18일



나는 선생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초면이지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안고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다같이 공동투쟁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였고 선생은 히틀러파시스트를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선생은 파시스트를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선생을 만나는 것을 같은 사상과 지향을 가진 전우들의 상봉으로 귀중히 여기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생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대하여서와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애국적 민주인사들을 도와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매개 민족의 권리이며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주성을 지향해나가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이 소련과 이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구라파의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은 여유있게 행동하면서 지난 시기처럼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제국주의예속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의 진면모에 대하여 알고 미국을 비롯한 지배세력에 얽매어 살지 않으려는 의지가 날이 갈수록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개 나라들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편향없이 전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성을 견지하면 좋은 노선과 정책이 나오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선생은 나를 세계인민의 수령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세계에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번에 치토대통령의 장례식에 가서도 세계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조의를 표시하러 온 것을 보고 유고슬라비아지도자들에게 치토대통령이 생전에 블록불가담운동의 정신에 맞게 자주노선을 견지하고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잘한 것을 비롯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자주성의 시대인 것만큼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대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일부 작은 나라들이 저들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나라에 있는 자기네 지지파들을 부추겨 그 나라 당을 반대해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공산당은 두파로 갈라져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단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벌의 배후에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는 것과 관련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시기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파벌을 조장시키는 대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이 건설하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건설되면 자기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 나라가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직후에 인민들에게 우리는 소련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미국식 민주주의도 아닌 조선식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가 새 사회 건설에 떨쳐나설데 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개혁을 실시할 때 지난날 일제의 앞잡이노릇을 한 극소수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중소기업가들의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과 손잡고 나아갔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기업가들은 명색이 기업가지 식민지나라 기업가로서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새 조국 건설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기 위한 토지개혁을 하는데서도 부농들의 땅을 몰수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토지소유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 때에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폭격에 의하여 기업가들과 부농들이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후에 와서 영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에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거기에 중소기업가들과 부농들도 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체를 세우고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발전의 특수성과 관련되어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큰 나라들사이에 위치하여있다보니 역사적으로 큰 나라들의 침략대상으로 되어왔습니다. 우리 선조들가운데는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조말기에 와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 친미파로 갈라져 사대주의를 하다보니 우리 나라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우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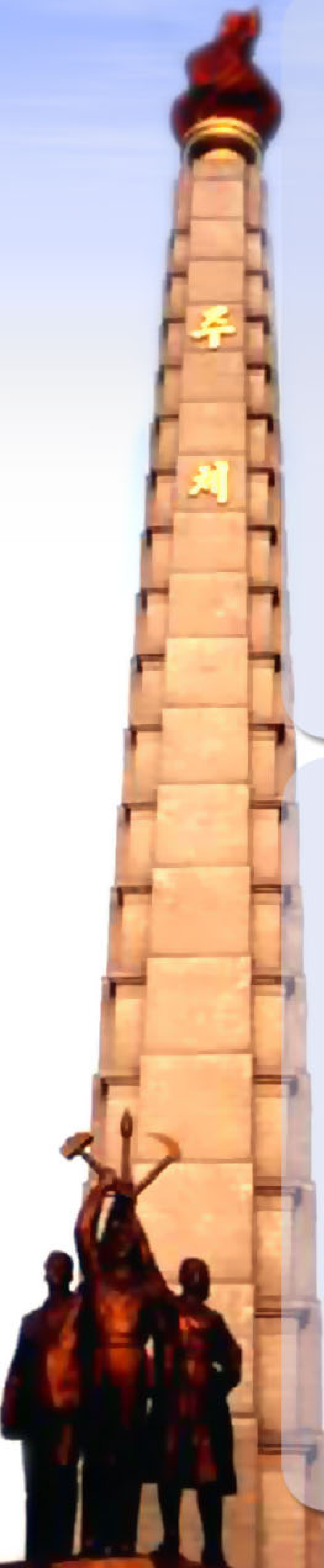
이런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분파행동을 하는 사대주의자들과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사회 건설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해방직후부터 후대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작고 돈도 많지 못한 나라이지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

매개 나라들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편향없이 전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성을 견지하면 좋은 노선과 정책이 나오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탁아소어린이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800만명이 훨씬 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새 세대들을 당과 국가에서 맡아 돈 한푼 받지 않고 무료로 키우며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당, 국가 기관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은 거의 모두가 우리 제도하에서 주체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전후까지만 하여도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사대주의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인민을 위한 사상이라는 것을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주는 것과 함께 우리 인민들이 행복하고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권리와 물질적 조건들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집단과 자신을 위한 창조적 노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노동에 따르는 분배와 국가로부터의 많은 추가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의 경제기술이 발전된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누구나 할 것없이 모두다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고르롭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창조한 물질적 재부가 모두 인민들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돌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인민들의 물질생활이 끊임없이 풍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무상치료제와 여러가지 공산주의적 시책에 의하여 건강과 장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적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도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으며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모두가 화목하게 살고 있으며 온갖 사회악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긍지와 희망에 넘쳐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에 왔던 구라파 어느 한 나라 당대표단성원들이 우리 나라 농촌마을에 찾아가본 일이 있는데 그들이 현지에 도착한 때는 한창 일하는 시간이어서 집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포전에 나가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탁아소, 유치원과 학교에 갔으니 집들에 사람이 있을리 없었습니다. 빈집들에는 쇠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집을 지키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비워두어도 일없는가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리 나라에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에 쇠를 채우지 않고 집을 비워두어도 아무 일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척 놀라와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언제나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 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일부 경제일군들이 묘향산과 금강산에 금이 많이 매장되어있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금을 캐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금을 몇톤 얻자고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파괴하겠는가, 우리 나라에는 금이 매장되어있는 곳이 많은 것만큼 다른데 가서 금을 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묘향산과 금강산에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을 위한 훌륭한 휴양소와 야영소들을 짓도록 하였으며 명승지들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 잘 꾸리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학생소년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금강산과 묘향산에 가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조선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선생도 알다시피 독일이 분열되어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도 외세에 의하여 분열되어있습니다. 분열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남조선땅을 30여년동안 강점하고 있지만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며 남조선의 군사파쇼통치체제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십여만명의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떨쳐나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대대적인 시위투쟁을 벌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그들의 절박한 요구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써는 결코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멈춰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물체든지 힘을 가하면 그만큼 반작용이 생기듯이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민들의 반항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에 의해 확증된 진리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수천명의 애국적 인민들이 갇혀있는 감옥에다 이번에 또다시 수많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을 가두어넣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반인민적, 반통일적 행위를 세계의 면전에서 더욱더 드러낼 뿐입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면 우리 나라의 통일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선생이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선생이 세계반동들을 반대하는 글을 많이 쓰다보니 그들로부터 압력과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선생은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으면 언제나 반동들의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반동들이 선생을 감옥에 가두어넣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선생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끝)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3. 카륜회의 (1)

6월하순이 되자 동무들은 약속한대로 카륜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카륜에는 이미 우리의 혁명조직들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1927년경부터 만주각지로 쉽게 래왕할 수 있는 교통의 분기점에 활동기지를 하나 만들어둘 필요를 느끼고 공청핵심들을 파견하여 이 일대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카륜에서 회의를 하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이곳이 교통상 편리한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과 회의참가자들의 신변안전과 비밀보장을 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은폐된 활동기지라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카륜은 반일운동자들의 래왕이 잦은 고장이였지만 적들에게는 로출되지 않은 곳이였다. 이고장 인민들이 또한 우리의 일이라면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장소는 이상적인 곳이였다.

내가 카륜에 도착하니 소년탐험대 총대장인 정행정이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카륜에 갈 때면 늘 그가 역에 마중을 나왔다가 나와 동행하곤 하였다.

카륜에 와보니 돈화나 길림보다는 분위기가 좀 평온하였다.

5.30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뒤여서 그 당시 간도의 공기는 대단히 험악하였다. 그런데다가 일본군대의 동만출병이 박두한 것과 관련하여 더 긴장해졌다. 일제가 간도에 군대를 들이밀려고 한 것은 이 일대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은 혁명운동을 진압하고 만몽을 점령하여 쏘련을 침공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자는데 있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라남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제 19사단 사단장 기와사마중장이 룡정, 연길, 백초구, 두도구 지방을 순시하고 있었다. 국민당 길림군참모장과 민정청처청장도 때를 같이하여 동만을 시찰하였다.

간도지방의 혁명조직들이 동만으로부터 일본군 중장과 국민당 참모장, 민정청청자를 내몰라고 호소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나는 그때 카륜에 가서 진명학교 교원들인 류연선과 장소봉의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장소봉은 진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동아일보≫지국자의 일도 겸하여보았다. 그는 차광수처럼 글도 잘쓰고 식견도 높은데다가 일도 잘하여 동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것이 흠이었다.

동무들이 충고를 주면 자기 안해가 지나치게 봉건적인 녀자여서 도무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타발하였다. 장소봉이 가정생활에 취미를 붙이게 하느라고 내가 여러번 설복도 하고 비판도 하였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장소봉은 조선혁명군이 조직된후 무기를 구입하려고 장춘에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전향하였다. 한때는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도 동원되었다고 한다.

카륜을 혁명화하는데서 김혁과 장소봉은 특별히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들은 이 지방의 유지들과 힘을 합쳐 학교와 야학을 세우고 그것을 거점으로 교육운동을 벌이였으며 농민회, 청년회, 소년회, 부인회 등 종래의 계몽단체들을 농민동맹, 반제청년동맹, 소년탐험대, 부녀회 등의 혁명적인 조직들로 개편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항일혁명의 담당자로 훌륭히 교양육성하였다.

김혁의 주관하에 잡지 ≪볼쉐위크≫가 창간된 곳도 바로 카륜이었다.

카륜역

나는 카륜에 가서도 사도황구에서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두고 사색을 계속하였다. 한달가량 사색하고 정리한 것을 종합해보니 퍼그나 부피가 큰 글이 되었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지도리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절박감을 뼈에 사무치도록 통감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도리론이 없이는 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었다.

자주성을 요구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세계적 규모에서 더욱더 확대되었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가장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던 대륙이 아세아였다.

아세아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중심무대로 된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이무렵에 와서 아세아후진국들의 리권을 강탈하기 위한 침략을 더욱 로골화하였기 때문이며 동방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과감히 떨쳐일어나 도처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결사적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

외세를 구축하고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동방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써도 멈춰세울 수 없었다.

쏘련, 몽골 혁명의 약진에 발을 맞추어 중국, 인도, 윁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의 억센 조류는 격랑처럼 끓어번지였다. 비폭력불복종운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도의 거리에서 방직공들이 붉은기를 들고 시위를 단행한 것도 이무렵이었다.

중국인민은 제 2차 국내전쟁의 불길속에서 1930년대를 맞이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투쟁과 국내 인민들의 적극적인 진출은 우리를 끝없이 흥분시키고 분발시켰다.

당을 내오고 옳은 지도리론만 내놓는다면 인민을 궐기시키며 얼마든지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일수 없는 신념으로 뿌리를 내리었다.

이 시기에 와서도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무대에는 각당, 각파의 립장과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여러가지 주의주장이 등장하여 대중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리론들은 이러저러한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때까지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우리가 그중 높은 형태의 투쟁이라고 본 것은 독립군들의 무장투쟁이었다. 이 투쟁에는 민족주의 좌익진영에서 가장 적극적인 반일독립운동자들과 애국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이 독립군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무장투쟁을 시작한 것은 독립전쟁을 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대에 의한 군사활동으로써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테로전술만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도라고 주장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잘 훈련시켜두었다가 쏘련,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일본과 전쟁을 할 때 그들과 련합하여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주장들은 어느것이나 다 일제와의 혈전은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군의 투쟁은 이러한 초지를 끝까지 관철할만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갖추지 못하였고 독립전쟁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강력하고 세련된 지도부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투쟁을 인적, 물적, 재정적으로 뒤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 지반을 꾸리지 못하였다.

개량주의리론가운데서는 ≪실력양성론≫이라는 안창호의 ≪준비론≫이 독립운동자들의 화제거리고 되고 있었다.

우리는 안창호란 인물자체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에 일생을 고스란히 바친 청렴하고 량심적인 애국지사로 존경하고 있었지만 그의 리론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았다.

상해림시정부의 비폭력적독립운동로선도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였다.

상해림시정부가 조직된지 얼마 안되어 사람들의 실망을 자아낸 존재로 된 것도 이 단체가 시종일관 한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비폭력적인 외교로선에 매달려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런것만큼 군사로선을 절대화하고 있던 독립군은 이것을 한사코 랭대하였다.

조선을 국제련맹의 위임통치하에 두어달라고 애걸한 리승만의 청원에 대해서는 무슨 로선이라고 말할 것도 없으며 민족주의 우파가 제창한 ≪자치론≫ 역시 민족의 독립정신에 배치되는 하나의 몽상에 지나지 않았다.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도 조선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지 못한채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종괄적으로 말하여 선행세대의 전략이나 로선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약점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외면한데 있었다.

선행세대의 운동자들은 한결같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진리를 무시하고 있었다. 수백만 대중의 조직된 힘에 의거해야 일제를 타도할 수 있겠는데 우리 나라의 반일운동자들은 혁명도 독립전쟁도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이런 립장에서 기초축성은 별로 하지않고 몇몇 상층인물들로써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당을 만들었으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카륜에서 들었던 집

➡

카륜회의

않고 3인1당, 5인1파식으로 서로 분렬되어 여러해동안 헤게모니싸움을 벌였다.

선행세대의 로선이나 전략들은 또한 조선의 산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지 못한 심중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조선의 산 현실에 부합되는 옳은 지도리론을 내놓자면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시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인 방식을 풀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였다. 지도리론을 마련한다고 하여 10월혁명의 경험 같은 것을 통채로 받아들여도 안되었고 국제당이 그 어떤 만병통치의 처방을 가져다줄 것 같이 기대하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어도 안되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인민대중의 힘밖에 없다. 2천만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하나고 묶어세워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혈전을 벌이자.≫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자주 울리었다.

나는 이런 충동을 안고 오늘 우리가 주체라는 이름을 달아서 부르고 있는 사상을 보고의 구절구절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보고에 담으려고 한 내용들은 모두 우리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들이었다.

나는 그때 특히 무장투쟁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보고에서 무장으로 전면적인 항일전쟁을 벌일데 대한 문제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본로선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무장투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것을 방침으로 채택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적수공권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조건에서도 나는 무장투쟁을 하자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손으로 새형의 군대를 창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지 따로 군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반일군사역량이 분렬되지 않겠는가고 의견을 달리하였다.

독립군이 우경화되고 반동화되어가는 조건에서 그속에 들어가 군대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무장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였고 불가능한 일이였다.

1930년 당시 독립군의 무력은 매우 렬세한 상태에 있었다. 국민부산하에 독립군의 무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9개 중대밖에 되지 않았다. 그 무력조차도 상층의 분렬로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대립되어 있었다.

국민부파란 독립군이 10여년동안 틀어쥐고온 기존방침의 고수를 절대화하는 보수세력이였고 반국민부파란 기존방침을 반대하고 새로운 로선을 추구하는 혁신세력이였다. 반국민부파 인물들은 공산주의에 공감하면서 그와의 제휴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을 ≪제3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닌 새로운 중도세력이라는 뜻이다. 민족운동내부에서 반국민부파와 같은 ≪제3세력≫이 대두하였다는 것은 이 운동의 방향을 공산주의운동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향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의 대립으로 독립군력량은 분렬되었고 민족운동내부는 혼란에 빠지었다.

독립군 중대들은 대체로 유격전쟁을 하는데 불리한 벌방지대의 부락들에 주둔하고 있었다. 무장도 변변치 못하였지만 규률이 문란하고 훈련상태가 저조한데다가 군중들과의 관계도 잘 가지지 못하였다.

창산리전투나 봉오골전투에서와 같이 일제의 대부대를 무리로 통쾌하게 섬멸하던 1920년대초의 전성기와는 달리 독립군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갔을 때 나는 현묵관과 함께 국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국민부력량을 가지고 일본과 싸워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가 국민부자랑을 너무 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노라고 던진 물음이었다.

≪승산은 무슨 승산, 이렇게 버티다가 대국들이 도와주면 독립을 하는거지.≫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아연해졌다. 싸워서 이길수 있다는 배심도 없이 대국들의 원조를 기다리면서 맹목적으로 싸우는 군대가 어떻게 맥을 추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롱담삼아 어떻게 국민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한테 모조리 넘겨주지 않겠는가, 무기만 넘겨주면 우리가 3-4년안으로 일본놈들을 몰아내겠다고 말하였다.

대회준비위원들에 대한 테로가 있기 전이어서 그때까지는 그런 롱담을 할 여유가 있었다. 현묵관이 원래 길림시절부터 내 롱담은 잘 받아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쓴웃음만 지었다. 철없는 공상을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국민부군대 같은 것은 가지고서는 현상유지만 하자고 하여도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형의 군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무장투쟁만이 가장 철저하고 혁명적인 반일항전으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만이 자기의 무장대오에 로농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폭넓게 집결시킬수 있으며 대중의 리익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전략전술로 무장성전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전개하면서 전반적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할 수 있기 때문이였다.

우리가 타도해야 할 일본제국주의는 청일, 로일 두 전쟁에서 자기 령토의 몇 십배나 되는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대국들과 싸워 쉽사리 승리한 신흥강국이었다.

이런 강국을 타승하고 나라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한다는 것은 곧 세계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을 타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광신적인 황도정신을 타승하고 명치유신후 신흥일본이 근 70년동안 이룩해놓은 모든 인적, 물적, 재정적 력량과의 소모전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장투쟁만 하게 되면 3-4년안팎에 일본을 패망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젊은 혈기가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생각이였다. 일본군벌들이 그런 고백을 들었더라면 아마 앙천대소하였을 것이다.

무슨 담보로 그렇게 판정했는가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다. 맨주먹밖에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담보가 있었겠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애국심이었고 젊은 혈기뿐이었다.

우리가 3-4년안팎이라고 한 것은 일본의 힘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애국심이 그보다 더 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담보가 있었다면 그것은 2천만 민중의 힘이었다. 2천만을 잘 훈련시켜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일본군경들을 족치면 나라를 독립시킬수 있으리라는 배심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투쟁을 본때있게 해나가자면 대중적 지반을 잘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로부터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대한 구상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조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화성의숙시절이리면 민족의 힘을 처음으로 느끼고 뇌리에 새겨둔 것은 3.1인민봉기 때였다. 내가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묶어세우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겠다는 결심을 품은 것은 길림시절이었다.

2천만의 총동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족적인 항전이 없이는 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순수한 계급혁명이라면 로동자, 농민 대중이 혁명의 동력으로 되겠지만 우리 혁명의 성격자체가 봉건을 반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인 것만큼 로동자,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인 종교인, 민족자본가들도 다 혁명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였다. 우리의 원칙은 민족해방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반일애국력량은 다 집결하고 다 동원시키자는 것이었다.

(내일 계속)

진명서숙

카륜회의가 진행되고
첫 당조직이 무어진 쟈쟈툰부락

일화

바닷가초소에서 (1)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1967년 7월 어느날 동해안의 한 해안포중대를 찾으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미국과 이남당국이 그해 봄에 있은 ≪경호함 56≫호사건을 계기로 백영도, 대청도, 소청도를 비롯한 동서해안과 휴전선 일대에서 연일 광란적인 군사연습을 벌이며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던 때였다.

이에 대처하여 인민군부대들에서는 전투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었다. 이런 때에 경애하는 영도자님께서는 동해안의 해안방어실태를 살펴보시기 위해 이곳을 찾으신 것이었다.

그분께서 이렇게 초소를 찾으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멀고 외진 초소일수록 더 마음쓰시면서 자주 들리시었으며 들리실 때마다 군인들의 가슴에 총쥔 병사의 자각과 영예를 깊이 심어주시고 초소를 철벽으로 지키라고 고무해 주시였다.

언제인가는 그분께서 이슬이 소리없이 내리는 이른새벽에 최전연초소를 찾으신 일이 있었다.

밤새 달려오신 그분을 너무나 뜻밖에도 최전연초소길에서 만나뵈온 군인들의 감격은 매우 컸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도자님을 전방초소에까지 가시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께서 타신 차를 막아나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안됩니다.

더는 가실 수 없습니다.

영도자님께서 오시는 걸음마다에 축원의 꽃보라를 뿌려놓고 군악을 울리고 만세를 부르며 맞이하는 영광의 시각을 꿈꾸어온 그들이였지만 살기어린 총구가 항시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휴전선초소길에 그분을 모셔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였다.

영도자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최전연에서 적들과 총을 맞대고 싸우고 있는 초병들이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곳에 자식을 보내놓고 그것이 걱정되어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친부모의 정이 흥건히 실린 그 말씀에 군인들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렇지만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안녕은 곧 전체 민중의 안녕이고 조국의 미래와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안됩니다. 절대로 나가실 수 없습니다.

가슴들을 내대고 성벽같이 막아섰다.

영도자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의 어깨며 가슴들을 일일이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길을 나라고 왜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가 적들과 총을 맞대고 싸우는 초병들도 만나보지 않고 그냥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초소들을 찾으시는 그분의 심정은 이런 것이였다.

(내일 계속)

송시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헌시

이인모

죽은 자는 산자로 될수없나이다
지옥행은 낙원행으로 바뀔수 없나이다
*** 나의 운명은
인생의 이 궤도를 부정했나이다
저는 다 죽었던 사람
남쪽의 옥방에서 이름 석자도 없이
수인번호로 불리우던 몸
숨쉬는 화석이였습니다,
시들어버린 **이였습니다
허나 내 오늘 지옥의 관문에서 벗어나
세상이 다 아는 이인모로 되었습니다
인생의 **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이런 행운을 두고 남쪽사람들은 말합니다
신화속의 운명의 신이 베풀어준 은총이라고
아니옵니다 저에게 행운을 주신 분은
위대한 인간이신 은혜로운 **김정일** 당신이옵니다
정녕 넘지 못할 분단선을 뚫고
죽은 몸을 꽃수레에 태워오신 당신이옵니다
하기에 내 오늘 운명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저의 운명은 자애로운 당신,
민족과 인류의 운명도 위대한 당신
저는 심장으로 말하렵니다
거룩하신 **김정일**, 당신은
진정 운명의 신이십니다
둘도 없는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십니다

흠모

유리공예품 ≪학≫

유리공예품 ≪학≫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1985년 7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국철노동조합대표단이 드린 선물이다.

예로부터 학은 오래 사는 동물로 널리 알려져 어느 나라에서나 장수와 행복의 상징으로 일러오고 있다. 일본에서도 학을 장수와 행복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그림이나 공예품에 많이 형상하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학을 형상한 공예품이나 그림을 장수하고 복되게 살기를 축원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높은 존대의 표시로 주고받는다고 한다.

이 우아하고 황홀한 유리공예품 ≪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그이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는 일본국철노동계급의 마음이 얼마나 순결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국철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자기 대표단의 조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업을 다그쳐왔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토의된 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릴 선물을 마련하는 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가장 의의 깊은 선물을 올리려는 것은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였으나 짧은 기간에 어떤 선물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쉽사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조선방문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대표단 단장 사까이 마사지는 대표단 성원들을 모아놓고 ≪날짜가 긴박하다고 하여 공업제품을 선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깨끗한 양심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은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조선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을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전해들으며 그들 모두는 얼마나 감동에 휩싸이군 하였던가.

대표단단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검덕의 노동계급을 찾아주시었을 때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을 이었다.

≪과연 어느 나라 노동계급이 이렇듯 위대한 영도자를 모셔본 적이 있습니까.

친애하는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세계 노동계급의 영도자이시며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십니다. 나는 그처럼 위대하신 분에게 올리는 선물은 응당 가장 뜻이 깊고 지성이 깃든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선물을 특별히 주문하여 마련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그의 제의를 적극 지지 찬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30여만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반영하여 유리공예품 ≪학≫을 선물로 마련하기로 하고 후꾸오까의 특수초자주식회사에 특별주문하기로 하였다.

특수초자주식회사는 일본에서 유리공예술로 이름이 높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비행기로 이 회사에 도착한 대표단 단장은 이곳에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서 유리공예품 ≪학≫을 만들어 가지고 도쿄로 돌아왔다.

자주시대의 위대한 향도성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천년만년 장수하실 것을 바라는 일본국철노동계급의 뜨거운 심정을 담은 선물 ≪학≫은 이렇게 마련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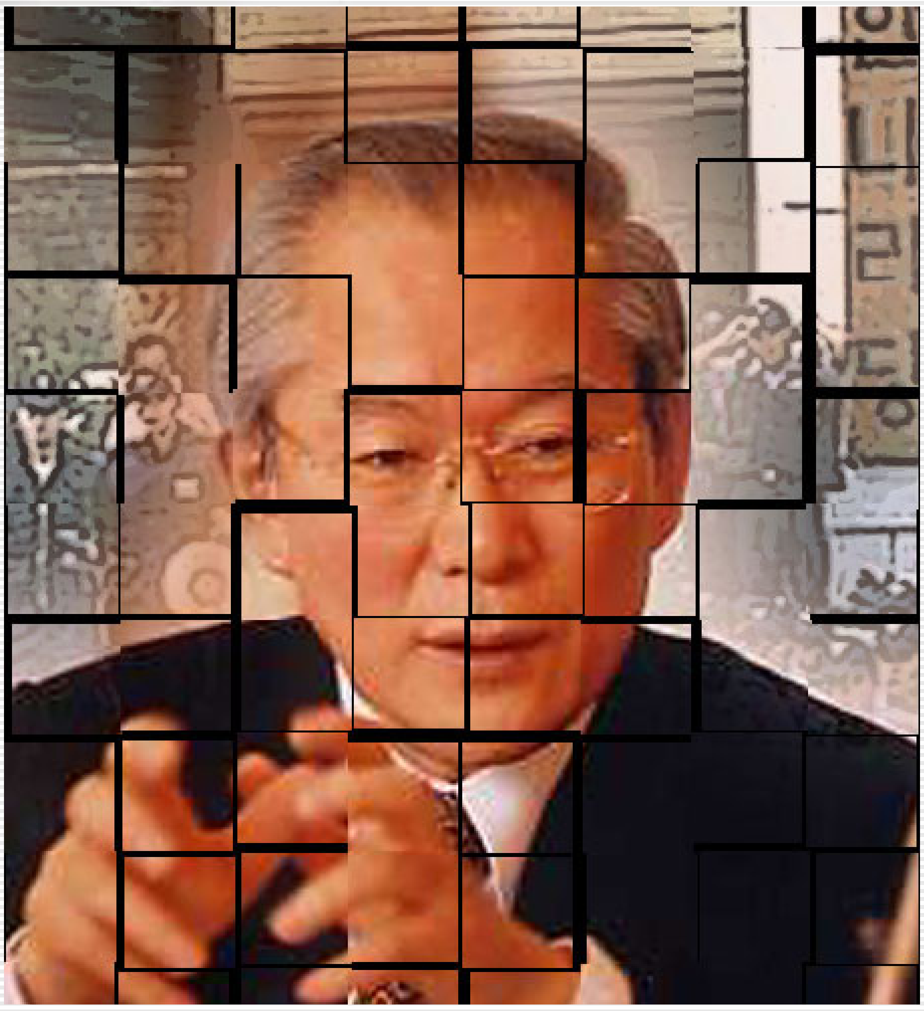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 도착한 대표단은 곧바로 직총중앙위원회 청사로 갔다.

대표단단장 사까이 마사지는 일본국철노동조합원들의 뜨거운 축원의 마음을 담은 유리공예품 ≪학≫을 직총중앙위원회 책임일꾼에게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 만수축원의 인사와 선물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숙소에 가서 휴식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노동계급의 탁월한 스승이시며 영도자이신 **김정일**각하께 축원의 인사와 선물부터 먼저 올려달라는 것이 우리 대표단과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부탁이며 소원입니다.≫

한나라당이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0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반민족, 반통일, 친미사대매국노 이회창이 총재로 있는 한나라당이 당내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한나라당 부총재 박근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부총재로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의원이 밝힌 탈당이유를 보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거부한채 어떻게 하든 집권만 하겠다는 이회창의 기회주의적인 행각에 더이상 동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탈당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 김덕룡의원은 박의원의 탈당은 *** **하며 날로 경직돼 가는 이회창의 1인지배 정당체제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고 말하고 탈당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경선불참을 선언한 강삼재가 한나라당 부총재직을 아주 박차는 등 많은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곧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대단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에 망조가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경선을 앞두고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회창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은 반민족, 반통일, 친미사대매국노이고 집권욕에 환장한 놈입니다.

이회창은 4.8합의서가 발표될 때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 것이 없다느니하면서 시비했고 6.15공동선언문이 발표될 때에는 공동선언의 자주적 통일부문이 주한미군의 철수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회창은 6.15공동선언발표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할 때에는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나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회창은 미국에 갔을때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북을 비난하면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책동을 지지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해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받았습니다.

이회창은 어떻게 해서라도 청와대에 입주해보려고 당내에서 ****을 부리고 대선후보를 경선이 아니라 ****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과 같은 반민족, 반통일, 친미사대매국노를 그대로 두면 대선도 *******대선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회창과 같은 특등야심가가 한나라당 총재로 그대로 남아있는 한 한나라당은 국민의 지탄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회창이 그동안 역사와 민족앞에 저질러온 죄악을 잘알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에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써의 자기의 앞길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뒤늦게나마 깨닫고 한나라당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회창은 한나라당이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계에서 즉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10일

2.16경축집회 런던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축전이 2월 7일 영국의 런던에서 진행된 2.16경축집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축전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일성**주석님의 위업을 계승하시어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확고부동하고 현명한 영도로 당과 국가, 군대, 민중을 이끄시어 나라의 평화와 통일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대해 칭송했습니다.

축전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

여러나라에서 2.16경축행사진행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리비아 카제다지역과 우즈베끼스딴 타슈켄트에서는 경축공연이, 캄보디아 프놈펜과 적도기니 말라보경기장, 리비아 브라크로 벨긴지역, 페루 페세손 마이야경기장에서는 태권도 모범시연과 체육경기가 2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페루 사회당 서기장을 비롯한 해당 나라들의 정계, 사회계인사들, 각계 민중들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는 먼저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페루 사회당 서기장은 **김정일**영도자님은 세인을 경탄시키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현시대의 위대한 정치원로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60성상의 위대한 혁명역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오신 무적필승의 강철의 영장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면서 그는 희세의 위인을 자기들의 당에 명예위원장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최대의 영광이며 행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축공연무대들에는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노래들과 무용, 기악**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체육행사들에는 태권도 모범시연과 축구, 배구 등의 경기들이 진행됐습니다.

탄신절에 즈음해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특집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특집했습니다.

이란 신문 ≪테헤란 타임스≫ 1월 30일자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김정일** 그분은 동지애의 화신≫이라는 제목으로 옹근 1면에 걸쳐 특집했습니다.

태국신문 성삼일보 2월 1일자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김정일**영도자의 정치철학 동지애≫라는 제목으로 옹근 1면에 걸쳐 특집했습니다.

캄보디아신문 ≪리아시마이 캄보디아≫ 1월 31일자는 **김일성**주석님께서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김정일**각하의 탄생일≫, ≪**김정일**원수각하의 약사≫라는 제목으로 특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카리아≫ 1월 29일자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민중적 영도풍모≫라는 제목으로 특집했습니다.

한편 라오스 국가TV방송, 에티오피아 TV방송, 기니 TV방송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조선의 신념≫ 등 이북 영화들을 방영했습니다.

영웅적 민중 위대한 전변 중국의 평양 주재 특파원

중국의 인민일보 2월 16일자가 ≪영웅적 민중 위대한 전변≫이라는 제목으로 평양 주재 책임특파원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북의 북부지역에는 자강도 민중들이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특수한 시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완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강땅에 새 기운이 약동하게 함으로써 산간벽지를 생기와 활력으로 충만된 사회주의 낙원으로 전변시킨데 언급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자강도의 각 부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최근 몇해 사이에만도 자강도에 대한 여러 차례의 현지지도를 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오늘 자강땅 그 어디에서나 시각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거세찬 시대의 진전은 당과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민중의 위력한 정신력의 일대 과시로 되며 자기 힘으로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북침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

이경수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1일

지금 이 땅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각일각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오는 3월21일부터 27일까지 벌어지게 될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주한미군과 미본토와 일본, 괌도 등에 주둔해 있는 미제침략군 다수가 참가하는 사상최대의 전쟁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해마다 벌여오는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하여 벌이는 것으로 하여 그 규모는 1993년에 중단되었던 ≪팀스피리트≫훈련의 재판으로 된다.

미국호전광들이 벌여놓으려는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철두철미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다.

우리의 남북 온 겨레와 전인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난폭한 유린행위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낙인하고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무모한 전쟁연습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 ≪악의 축≫론을 제창하는 부시의 서울행각이후 벌어지는 것으로 하여 그 목적과 위험성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미국과 한국호전광들이 합동으로 벌이려는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부시호전광의 ≪악의 축≫론을 실천행동으로 옮겨 이북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해 보려는 짓이며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6.15공동선언이행을 저지파탄시키고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격화시키고 임의의 시각에 새전쟁을 도발하려는데 그 음흉한 저의가 있다.

침략과 전쟁, 약탈과 전횡은 미국의 생리이고 생존방식이다.

미국은 자주로 존엄높은 북을 병탄해보려고 이미 ≪팀스피리트≫북침전쟁훈련을 93년까지 끈질기게 해왔다.

그리고 ≪을지 포커스렌즈≫니, ≪독수리≫니 뭐니 하는 각종 명칭의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며 한반도정세를 긴장격화시켜 온 장본인이다.

더욱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할 때마다 각종 전쟁연습을 벌여 대결을 격화시켜 온 분열의 원흉이고 통일의 주되는 방해자이다.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북침전쟁에 혈안이 되어 온 미국은 6.25침략전쟁참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50여년동안 4만여명의 주한미군과 1천여개의 핵무기를 산적해 놓고 하루도 중단없는 북침전쟁준비를 완비해 오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출현으로 악의 근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전쟁국면에로 치닫고 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호전광은 이북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고 ≪악의 축≫론을 제창하며 그 어떤 군사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서울을 행각하여서는 주한미군기지들을 돌아치며 임전태세를 정검하고 한국호전광들에게 북침의 입김을 불어넣는 횡포무도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바로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벌어지는 것으로써 어느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지 모를 침략전쟁연습이다.

오늘 우리 민중과 겨레는 언제 전쟁의 참화를 입을지 모를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북침전쟁은 곧 민족을 공멸시키고 한미호전광들의 무모한 전쟁연습으로 온 강토를 초토화하는 핵전쟁으로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그처럼 염원하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행도 중단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 민중이 과연 민족의 공멸을 몰아오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좌시묵과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한 우리 민중의 생존은 절대로 담보될 수 없다.

전국민은 내가 살고 겨레를 살리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지파탄시키는 반전, 반미, 반부시투쟁에 과감히 떨쳐일어나 전쟁의 근원인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국과 한국호전집단은 우리 민중의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주한미군과 모든 침략전쟁장비들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부정비리는 근절될 수 없는 한국적 병폐

신대진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1일

최근 여러가지 부정비리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니전투구장을 방불케 하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올들어 연초부터 진도 앞바다 보물발굴사업과 관련한 이형택비리사건과 각종 벤쳐비리의혹사건, 윤택식노비의혹사건 등이 여야의 정치공방전으로 비화되었다.

이형택이 보물선인양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진승현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도피를 도와준 국가정보원 김은성 전2차장과 정성흥 전 과장이 1월31일 공판에서 실형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의 장남 이성현은 모계약회사의 주가조작을 통해서 수백억원대의 시사차액을 챙겼다는 주가매입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감 정모가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되었다.

지난해에 각종 벤쳐기업비리의혹도 제기되었다.

각종 인허가 관련공무원들의 금품수수행위는 비일비재하다.

한나라당의 예비경선이 한마디로 돈잔치가 될 것이라는 것이 민심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시에 엄청난 금품을 뿌렸고 또 올해 지자제선거시에 대량 지지자동원설과 돈살포설이 계속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일보≫ 2월2일자가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을 108개 회원국가운데 14번째로 정치불안정성이 높은 나라로 분류했다≫며 ≪비리만 터지면 권력주변 인물들의 이름이 어김없이 나오는 것은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한심한 것이다. 결백을 주장한 고위공직자가 며칠 안가 쇠고랑을 차는 모습도 일종의 웃음거리이다. 검찰이 비리수사에 나섰지만 특검에 의해 결과가 부정당하다고 검찰간부들이 줄줄히 옷을 벗는 모습은 확실히 후진국형이다≫라고 평한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각종 비리가 창궐하고 민심이 소란해지자 당국은 연초부터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연다 ≪부패방지위원회≫를 정식 출범, 가동시킨다 어쩐다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제아무리 부패척결을 공약하고 부정비리를 가차없이 척결하겠다고 하지만 식민지한국의 정치가 정경유착과 금권정치이고 부정비리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고질적이고 제도적인 한국적 병폐인 까닭에 부정비리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0일

높아가는 대조선압살정책

≪로동신문≫ 10일부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군사적위협≫을 구실로 대조선압살정책의 도수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데 대하여 폭로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론설은 미국정책작성자들이 우리의 ≪군사적위협≫을 코에 걸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벌리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싸일체계수립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를 틀어쥐기 위한 공격무기의 확대이며 우주의 군사화책동이다.

미국이 우리의 ≪군사적위협≫을 세계지배전략실현의 대의명분으로 써먹으려는것은 저들의 대조선압살정책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그 누구에 대한 ≪위협≫으로 거꾸로 걸어 선전하면 세계를 납득시킬수 있으며 따라서 저들의 침략정책도 얼마든지 추진시킬수 있다고 타산한데서부터이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우리의 있지도 않는 ≪대량살륙무기개발≫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미국은 ≪반테로전쟁≫에서 계속 힘을 과시할것이라고 을러 메고 있다.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전야의 국면에 접어 들고 있다. 새로운 조선전쟁은 미국이 지금까지 치른 전쟁과는 다르게 결판될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의 전쟁에도 주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여 있다.

특보 발간
2.16동지회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2. 16동지회 회원들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보여 주는 특보 1, 2를 발간하였다.

특보 1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사진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헌시 ≪2월의 명절을 노래합니다≫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글 ≪만대에 빛날 영원불멸의 업적≫, ≪만민이 우러르는 21세기의 태양≫, ≪우리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삽니다≫ 등이 편집되였다.

특보 2는 ≪위인의 거룩한 발자취≫라는 제목아래 평양방송이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지니시고 조국광복후부터 지난해까지 105만 8, 260여리의 머나먼 길을 걸으시여 1만 1, 326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전한 소식을 실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는 인민들의 한결 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금강산 자연바위에 ≪천출명장 **김정일**장군≫이라는 특대형 글발을 새겨 놓은 소식도 전하였다.

위대성칭송도서들 여러 나라에서 출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각종 도서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되였다.

올해에 들어 와 일본, 레바논, 네팔, 에짚트, 수리아, 뽀르뚜갈에서 시집 ≪21세기의 태양찬가≫, 가사집 ≪태양을 우러러≫, 도서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조선≫, ≪조국애와 조선에 대한 생각≫, ≪빛나는 별의 나라≫를 비롯하여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와 백두산 3대장군의 혁명활동사진들을 모신 출판물이 발행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랑의 정치가 **김정일**≫, ≪**김정일**세상이 온다≫, 로씨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 등의 도서들이, 뻬루와 브라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략전들이 특제본으로 출판되였다.

새 사회건설에 관한 제6차 토론회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6차토론회가 메히꼬시에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메히꼬로동당, 중국공산당, 꾸바공산당, 베트남공산당, 로씨야련방공산당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44개 나라에서 온 89개 정당 및 투쟁단체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 실태≫, ≪현 정세에서 주목되는 문제≫ 등 의제에 따르는 토론들이 있었다.

또한 조선반도정세와 팔레스티나문제를 비롯한 현 시기 세계정치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보충토론들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성명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제국주의자들의 계속되는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이룩한 커다란 전진과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으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정당들이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광범히 조직진행하여 이 뜻 깊은 날들을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기념할것을 호소하였다.

성명은 미국대통령 부쉬가 ≪년두교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고 걸고 든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이 조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마당에 전제조건 없이 나서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남조선에서 ≪주적론≫을 철회하고 ≪보안법≫을 비롯한 일체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이 하루빨리 철폐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지난 1월에 진행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제기한 3대호소, 3대제의를 지지하는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을 세계의 모든 진보적정당들에 호소하였다.

≪아리랑≫ 소개
중국신문

중국신문 ≪료녕조선문보≫ 2월 22일부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소개하였다.

신문은 조선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대본이 완성되고 본격적인 작품형상에 들어 갔다고 하면서 이미 수 많은 가요와 관현악곡들이 작품의 성격에 맞게 편곡되였으며 경기장의 립체적인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최신과학기술 도입사업이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대형화, 률동화, 립체화, 과학화수준이 높은 단계에서 겸비된 배경대의 조화와 함께 펼쳐 질 공연의 황홀경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부쉬의 망언 규탄
여러 나라 인사들

여러 나라 인사들이 미국대통령 부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걸고 든것을 규탄하였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토마스 뢴스트룀과 부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은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부쉬가 조선이 대량살륙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떠벌인것은 평화적인 자주독립국가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이라고 언명하였다.

담화는 부쉬행정부가 클린톤행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합의를 뒤집어 엎고 계통적으로 적대시정책을 실시해온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기 위하여 세계인민들이 미국의 전쟁정책을 규탄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기네 전국공보위원회 위원장 에밀 톰빠빠, 호로야신문사 책임주필 이브라히마 쏘리 디엥, 전국근로자련맹 총서기 라비아뚜 쎄라 디알로는 담화들에서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론은 부쉬의 정치적미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정치국 대변인은 담화에서 부쉬가 남조선행각시 조선을 또다시 걸고 든것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파탄시키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 규탄하였다.

외국인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단죄

지난 2월에 있은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에 참가하였던 외국의 벗들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규탄하였다.

베네수엘라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대표 마리쏠 루이스는 미국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중의 하나라고 한것은 선전포고나 같은것으로서 조선인민에 대한 미국의 계속되는 위협공갈의 표현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은 힘의 정책으로 조선을 굴복시킬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세계평화리사회 집행비서 아타나시오스 파필리스는 미국에서 최근에 벌어 진 모든 사태들은 미국의 그릇된 정책이 빚어 낸 후과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존엄 높은 사회주의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야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조선통일지지 아시아지역위원회 서기장인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옴 프라카쉬 만뜨리는 미국이 6. 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조선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것은 미국이야말로 조선통일의 파괴자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사상제일주의

공동사설 해설 - 주체91 1월 19일

김일성민족의 삶의 터전이며 행복의 요람인 우리 조국은 위대한 사상으로 존엄떨치고 사상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 나가는 주체의 강국이다.

이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워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자면 우리 사상제일주의, 주체사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의 불패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사상은 민족의 넋이고 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에 달려 있다.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물질적재부가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좌우하는것이 아니다. 사상이 위대하면 설사 작은 나라나 민족일지라도 시대사상의 조국으로, 강대한 민족으로 그 위용을 떨칠수 있다.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존엄과 긍지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혁명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승리의 기치이고 우리 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며 자주시대를 이끄는 불멸의 홰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주체사상을 무기로 하여 당도, 국가도, 군대도 창건하시였으며 세기적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견인력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시대에 최상의 높이에서 발휘되고 있다. 20세기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와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선군정치도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나왔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당해 낼수 없는 우리의 일심단결도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되고 강화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사대와 교조를 모르는 자주정신이 강한 혁명적인민으로, 역경과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불굴의 영웅적인민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참으로 오늘 온 누리에 그 위용 떨치고 있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과 긍지는 주체사상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백승의 력사를 수 놓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것을 민족적긍지로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더욱 빛내여 갈 결의에 넘쳐 있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 나가려는 드팀 없는 의지이다.

세기가 바뀌고 력사가 멀리 전진했다고해도 조선혁명은 위대한 주체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사상을 민족의 넋으로, 생명으로 틀어 쥐고 빛나는 승리와 위훈을 창조하여 온 우리 혁명의 긍지 높은 력사를 세기를 이어 빛내이기 위하여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체위업완성과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위대한 사상적기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은 주체의 기치높이 지난 수십성상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풍부한 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된 자주시대혁명의 불멸의 기치이다.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석의 신념,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오신 내나라, 내 조국땅우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높이에서 떨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의지가 높뛰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의 기치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 오는 나날에 장군님의 사상을 신념화한 불굴의 투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오고 험준한 산악이 막아서도 **김정일**동지의 사상밖에는 모른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하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장군님의 사상과 방침을 결사관철하여 이땅우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감으로써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안아 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 쥐고 나간다는것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대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침으로 틀어 쥐고 나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신조로, 철칙으로 여기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사상에는 공백이 있을수 없다. 우리는 혁명이 멀리 전진할수록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한시도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의 본질과 내용, 독창성과 정당성을 원리적으로 인식하는것과 함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거대한 위력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자주는 우리 혁명의 생명이다. 우리 인민은 자주만이 살길이고 자주에 주체조선의 존엄이 있음을 실생활로 절감하였기에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에나 오늘에나 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로선과 우리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우리의 언어와 풍습, 생활양식을 귀중히 여기고 전면적으로 꽃 피워 나가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주체의 철리로 일관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억세게 틀어 쥐고 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총 돌격전에서 다시한번 승리자의 영예를 떨쳐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광범한 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16회

림종수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10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광범한 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셨을 뿐아니라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시고 그들이 사회주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선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강성대국건설의 핵심부대, 선봉부대로 내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는 노동계급을 중시하고 적극 내세우며 노동계급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고 노동계급에 철저히 의거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나감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을 내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주체84(1995) 6월 4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동신문사 책임일군에게 노동계급을 내세우는 글을 많이 써내내라고 하시고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책임일군을 찾으시여서는 노동계급은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라고 하시며 노동계급의 대한 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1995년부터 해마다 5.1절이 오면 당과 정부의 간부들을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하시여 노동자들과 체육, 오락경기도 함께 하면서 명절을 뜻깊게 쇠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은정에 목메여 각지의 노동계급이 부르는 힘찬 노래소리, 구호소리가 장군님을 대를 이어 높이 받들어 갈 신념의 분출로 되여 5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쳐 갔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노동계급이 있고 노동계급의 심장속에는 장군님만 계시였습니다.

주체87(1998)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동계급을 선봉에 내세우시고 새로운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쉼없이 이어가신 뜻깊은 역사의 해였습니다. 그 해 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노동계급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땅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노동계급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신념과 의리로 공장을 지키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도 당이 바라는대로 잘해 나가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번에 자강도에 와서 이곳 노동계급이 당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달라고 할 대신 일감을 달라는 자강도 일군이 마음에 든다고 더없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런 인민들과 함께라면 지구도 통째로 떠밀 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믿음이 마디마디 뜨겁게 울리는 말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땅의 노동계급이 간직한 그 숭고한 혁명정신, 강계정신을 온 나라가 따라 배우도록 이끌어주시면서 주체87(1998) 3월 9일에도 노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으시고 북방을 대야금기지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강철노동계급을 찾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곳 노동계급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오늘의 난국의 뚫고 나갈 방도를 의논하시고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전체 노동계급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앞장에서 들고 나갈 것을 뜨겁게 호소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성강의 노동자는 성강의 봉화를 높이 들었고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따라 온 나라 각지의 노동계급 분연히 떨쳐일어나 새로운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나갔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후 6월에 또다시 자강도를 찾으시여 자신께서는 자강도의 노동계급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고 자강도의 노동계급은 계속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참으로 조국의 북변과 동, 서해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수천수만리를 걸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노정은 노동계급을 강성대국건설의 선봉부대, 나라의 맏아들로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강성대국건설의 토대를 하나하나 튼튼히 다져나가신 참으로 의의 깊은 역사적 장정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농업근로자들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당선전 교양망을 통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장원들을 내세우기 위한 선전사업을 강화하여 노동자들과 함께 농장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근로자들을 농업전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고 그들의 애국적 헌신성과 노력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연재해가 연이어 들이닥친 1995년과 1996년의 그 어려운 시기에 농업근로자들을 믿으시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농업생산을 추켜세우실 결심밑에 농업근로자들과의 사업을 잘 할데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 1월 24일 전당 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역사적 서한에서도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해도 농업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발휘된 애국적 소행을 가지고 긍정감화교양을 강화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 시기에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옥희동무의 영웅적 소행에 대한 이야기가 온 나라 농장원들속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주체87년(1998)10월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양강도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양강도 뿐아니라 자강도에서도 감자농사를 해야한다고 하시며 자강도에서는 잘하면 두벌농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박옥희동무는 그 말씀을 자자구구 가슴에 새기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이악하게 일판을 크게 벌려 북방의 산골에서 세벌농사 장훈을 불렀습니다. 그의 이 소행을 보고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이룩한 성과를 크게 치하해 주시고 그를 시대의 전형으로 영웅으로 내세워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이 성과는 농업생산에서의 앙양이 그 주인인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 달려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었으며 시대의 영웅인 박옥희동무의 소행은 온 나라 농장원들의 거울로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농촌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셨으며 농업근로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높은 충성심과 견결한 애국심을 안고 자원 진출하는 수도의 지방의 핵심들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농촌에 뿌리내리도록 하시는 한편 제대군인 대부대들을 대홍단을 비롯한 여러 농촌들에 파견하시여 농촌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바로하게 하는데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로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 1월 1일에도 농업근로자들을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의 직접적 담장자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으며 이해의 연초부터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99년 1월 8일부터 전국농업부문일군열성자회의를 평양에서 진행하도록 하시고 양강도 대표들을 위하여 대형 여객기를 띄어주시고 이착륙조건과 기후조건에 따르는 안전대책까지 다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전국농업부문일군열성자회의에 참가할 양강도 대표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보내주신 사랑의 비행기를 타고 회의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억만금의 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자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한 농업근로자들을 오늘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 농촌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또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중시하시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지식인들을 자기 수령, 자기 당을 위해 헌신하는 참다운 충신으로, 견결한 혁명자로 키우실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지식인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모든 지식인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을 깊이 체득하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한 실천투쟁 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우리 지식인들을 당정책의 열렬한 지지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만들며 그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심을 모르고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적인 지식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바치신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은 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계급을 중시하고 적극 내세우며
노동계급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고
노동계급에 철저히 의거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나감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12면에 계속)

부시정부의 핵정책 모순

핵무기 사용과 핵확산 방지

부시정부가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시정부는 올초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최소 7개국들을 대상으로 핵무기 사용 계획을 포함한 유사시 계획을 국방성에 지시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10일 폭로했다.

이들 7개국은 중국, 러시아와 부시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지목한 북한, 이란,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시리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성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분쟁 유형과 관련국들은 ▲화학, 생물학 무기에 의한 공격 ▲불명확한 ≪기습적 군사공격≫ ▲북한의 남침 ▲중국의 대만 공격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8일 의회에 보고된 비밀 핵무기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는 벙커공격용 소형 핵무기 개발, 쌍방에 피해를 주는 핵무기의 축소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L.A.타임즈는 이 NPR에서 핵무기 감축 및 핵확산금지라는 외교적 목표와 상상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군사적 준비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꼬집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작년 5월 5일 안보정책 대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확산, 반확산, 미사일방어 등을 천명하는 자리에서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을 위해 일방적인 핵무기 축소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로 인해 부시정부의 핵무기 감축은 공허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핵무기 사용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시정부는 작년 9.11테러 이후 국제정세를 주도하면서 미사일방어망의 추진을 위해 탄도미사일제한(ABM)조약을 일방 탈퇴하기로 하여 일방주의적인 안보정책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부시정부의 핵무기 사용 계획은 럼스펠드가 이끄는 국방성의 핵전략관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성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장거리 핵무기 감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술적이고 소위 ≪적응적≫ 핵전력을 증진해 유사사에 대비한다는 핵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PR 보고서는 미국의 핵공격능력의 준비는 ≪즉각적이고, 잠재적이고, 혹은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와 관련된다고 하고,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이 이런 상황 발생과 관련된 국가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존 볼튼 국무성 차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억지정책이 모든 사람들에 작동한다는 사고는 9.11테러로 잘못된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한바 있다.

유사시 부시정부의 이같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명백히 억지정책, 최후의 방어수단으로서의 핵무기의 사용 방침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부시정부의 이런 입장은 관련당사국들은 물론 핵확산 우려를 불러와 세계적인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안보보좌관 등 미 고위인사들은 부시의 핵정책이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파월은 오늘 부시정부에서는 핵무기 개발 및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핵무기 사용가능성은 일파만파로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보혁 기자
2002/03/11 통일뉴스

부시 ≪2단계 대테러전쟁 진입≫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2단계 대 테러전 진입을 천명하면서 ≪2단계 대테러전은 테러범들의 피난처를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9.11 테러 6개월 기념행사에서 ≪우리는 대테러전의 2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시민들을 위협할 테러범들의 피난처를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테러범들은 정착하거나 조직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으며 자신들을 보호해줄 정부도 없고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장소 조차도 없는 국제적인도망자로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라크가 미국의 대테러전에서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는 추측과 관련, 테러를 비호하고 대량파괴무기를 추구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관한 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경고했다.

그는 ≪테러 단체들은 이러한 무기들을 갈망하고 있으며 일말의 양심도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와 동맹관계인 나라들은 모두 대규모의 테러와 생물학, 화학, 핵무기들을 사용하는 테러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미국주도의 대테러전을 지지하고 있는 100여개 국 대사들이 참석했으며 한국, 나이지리아, 터키 대사들이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대테러전 지지 연설을 했다.

2002/03/11
워싱턴 AFP, 연합뉴스

미 핵태세 보고서, 그리고 북미관계

조지 W. 부시 미행정부가 북한, 이라크 등을 포함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긴급대책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알려짐에 따라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한반도 분위기에도 냉기류를 조성하게될 것이며, 북미관계에 또하나의 악재로 부상할 것이라는게 외교분석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북한으로서는 대북강경책을 구사해온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1년간 대화가 거의 없었던데다 지난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 강력히 반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국관계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냉각국면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우려를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번 보고서는 공격가능성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미국방부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미대화는 물론이고 남북대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계기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이 보고서의 현실화 가능성은 의문인만큼 무엇보다 북측이 냉정한 자세로 한미와의 대화에 호응,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권경복 기자
2002/03/11 인터넷 한겨레

(11면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속에서 벌어진 강고한 실천투쟁의 나날에 우리 지식인들은 사상의지적으로 더욱 단련되고 그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시인부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삼가 올린 편지에 ≪저희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장군님을 간직한 이 마음을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며, 얼어죽으면 죽었지 장군님 품을 떠나 남의 집 지붕밑으로는 한발자국도 들어서지 않을 것이며, 단두대 위에서 매맞아 죽으면 죽었지 장군님 노래를 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고 따르는 온 나라 지식인들의 각오가 얼마나 확고하고 그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오늘 우리의 모든 지식인들은 오직 당과 수령님만을 알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붉은기를 결사고수 해나가는 혁명적 지식인으로, 당의 영원한 동맹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 뿐만아니라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 경기가 복잡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의 가슴속에서 한점의 자그마한 그늘까지도 다 가셔주시고 그들이 사회주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실지 체험을 통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 모두의 운명의 보호자, 수호자이시며 인민들을 차별없이 한품에 안아 사랑을 부어주시는 만인의 자애로운 태양이라는 것을 더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은 나날이 공고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정치사상적 대결을 승리에로 조직영도≫ 이런 제목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계사 발전노조 가족들의 2시간의 만남과 이별

≪발전노조원들이 모여 있던 조계사에 지금 막 경찰이 난입, 일부 발전노조원들을 체포하고 입구를 봉쇄하고 있답니다.≫

10일 오후 4시10분경 서울 명동거리 입구.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던 3000여 명의 민주노총 행렬이 갑자기 멈춰 섰다. 그 속에는 ≪산개 투쟁≫ 중인 ≪아빠≫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000여 명의 발전노조원 가족들도 포함돼 있었다.

더 이상 긴말이 필요 없었다. 지난 2월25일 총파업을 시작한 발전산업노조(위원장 이호동) 소속 5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산개 투쟁≫에 나선 지 벌써 보름째. 그 동안 남편과,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발전노조 가족들에게 ≪체포≫란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하기에 충분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발전노조 평택화력지부 가족대책위원회 손윤희(36) 씨는 ≪남편의 투쟁이 곧 우리의 투쟁≫이라면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우리 알짜배기 기업의 해외 매각시키는 발전소 민영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식간에 머리띠를 풀고 플래카드를 내린 발전노조 가족들은 서둘러 조계사로 달렸다. 그때 조계사 안에 남아 있던 200여 명의 인천, 영흥지역 발전노조원들은 이미 긴급 출동한 1천여 명의 경찰들에 의해 완전히 갇힌 상태였다. 4시30분경 현장에 미리 도착한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리 일행이 조계사 경내로 들어가려 하자 수십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앞을 가로막았다.

한 노조원이 무슨 권리로 절에 들어가는 걸 막느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현재 작전중이기 때문에 신도증을 제시해야 들여보내주겠다≫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발전노조 가족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어린아이 손을 잡은 부녀자들이 남편을 만나야겠다며 사정했지만 묵묵부답뿐. 경찰들은 조계사로 통하는 입구 네 군데를 이중 삼중으로 완전 봉쇄한 데 이어 한동안 조계사 앞 4차선 도로를 완전 차단해 차량 통행까지 막았다.

이에 발전노조 가족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대학생 등 수백여 명은 조계사 입구 밖에서 함성을 지르며 ≪경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곧 시위대를 조계사 맞은 편 골목으로 강제로 몰아넣었고 이 과정에서 인천화력노조 가족대책위 소속 김민정 씨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쓰러져 인근 한국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또 어머니를 따라왔던 대여섯 살짜리 어린아이가 경찰의 방패에 눈썹 근처가 찢겨나가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고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오후 5시경 조계사 법회가 끝난 뒤 귀가하려는 신도들이 ≪왜 통행을 가로막냐≫며 경찰측에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들은 입구 봉쇄를 풀고 신도들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경찰측은 ≪조계사측에서 시설보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도를 제외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 것이지 나오는 건 안 막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틈에 인천화력 노조원 가족 일부가 조계사 경내로 들어와 안에 있던 남편들과 감격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다. 보름만에 만난 남편이 붉어진 눈길을 돌리는 사이 한 노조원의 아내는 굳이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함께 들어오니까 다행히 막지는 않더라고요. 부탁인데 언론에서 좀 제대로 보도해서 파업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이번 총파업에 대해 보여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발전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의 불만은 경찰에 대한 것 못지 않았다. 오후 6시경 입구 앞에서 사복경찰들의 경내 출입을 막고 있던 노조원 가족들은 기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XX일보 그것밖에 보도 못해요≫, ≪OO일보 제대로 좀 해요≫라며 따끔하게 꾸짖었다. 또한 보수 일간지 사진기자가 자신들을 촬영하려 하자 ≪어차피 편집할 거면서 뭐 하러 찍어요≫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짧은 해후도 잠시 어느새 100여 명으로 불어난 발전노조 가족들은 우선 경내에 남아있던 사복경찰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조계사 주지스님의 호통에도, 발전노조원들의 항의에도 꿈쩍 않던 사복경찰들은 남편을 보호하려는 가족들의 ≪막무가내식≫ 밀어내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입구 밖까지 사복경찰들을 몰아낸 어머니들은 아예 입구 앞에 10여 명씩 진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저녁 7시가 가까워 오면서 어느새 어둠이 드리워진 조계사 뜰엔 차가운 모래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뜰에 삼삼오오 서서 지도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던 200여 명의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은 추위도 잊을 겸 ≪탑돌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얼렁뚱땅 시작한 ≪몸풀이≫였지만 한 조계사 신자의 귀띔 덕에 시계 방향으로 돌며 한 바퀴 돌 때마다 합장을 하도록 하는 등 제법 격식을 갖춰갔다.

마침내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이호동 위원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됐다.

≪우리가 모두 연행되더라도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가족들은 모두 돌려보내고 노조원들은 끝까지 남아 조계사를 사수하십시오.≫

발전노조 가족들은 또 다시 짧은 만남 뒤의 작별을 인사를 나눠야 했지만 다시 눈물이 끼어들 자리는 없는 듯했다. 2시간의 만남을 통해 서로가 강한 버팀목임을 서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5000여 명의 발전노조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산개 투쟁을 벌이고 있고 그 가족 역시 그들만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시연 기자
2002/03/11 오마이뉴스

발전 노조원 49명 징계해임 확정

11일로 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째로 접어든 가운데핵심 노조원 49명에 대해 최종적인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5개 발전회사는 이날 오후 사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1차로 고소했던 52명 가운데 복귀자 3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또 2차로 고소한 197명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193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첫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심의를 연기, 오는15일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별로 3차 징계대상자로 500여명을 선별, 이날 중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는 모두 750여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파업이 끝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2002/03/11 연합뉴스

교수노조, 민주노총 가입

대학의 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교권수호를 내걸고 출범했던 교수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동안 불법조직으로 한계를 지니던 교수노조는 노동계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됐다. 한편, 노동계에 교수들의 전문역량을 투여함으로써 노동운동에도 활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강과 함께 교수 계약제・연봉제 저지를 위한 전국교수 서명운동이 시작되며 4월에는 대규모 전국교수대회가 열려, 계제약・연봉제를 반대하는 교수사회의 움직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서울대 의학과, 이하 교수노조)은 지난달 23일 충남 유성 동학산장에서 노조결성 이후 첫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교수 계약・연봉제 투쟁계획 등 올해 사업안을 확정하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 시간강사를 노조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교수노조 2002년도 사업안에 따르면, 교수노조는 민교협, 국교협, 전국대학교수회, 사교현, 전교련, 학단협 등 교수 7단체와 함께 3월부터 전국 교수들을 대상으로 계약제・연봉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4월에는 이들 7단체가 공동으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교수 7단체는 지난 1월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시한부 농성과 전국 순회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관련기사 5면 인터뷰≫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교수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함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대학노조, 대학노조와 함께 교육관련 산별노조설립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교수노조는 올 한해 민주노총, 전교조, 대학노조, 전국강사노조, 참여연대 등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수노조는 시간강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보했던 부칙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강사들의 노조가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교수노조는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교수노조 대의원대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한 민교협(상임회장 김윤자)도 계약제・연봉제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하고, 특별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손혁기 기자
2002/03/11 교수신문

한총련 합법화 위한 움직임 활발

1월 31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준비모임≫이 구성되었다

최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문제를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월 31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준비모임(대표 권오헌, 이하 준비모임)≫이 구성이 그것이다.

93년 출범이래 1254명(2001년 8월 현재)이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처리 되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900여 명이 구속됐다. 96년 연세대 사태와 97년 출범식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이석 씨, 이종권 씨 치사 사건은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해마다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선출하는 단과대학 학생회장(총학생회장)들을 어떤 행위적 근거도 없이 ≪이적 단체 가입 및 구성≫ 혐의를 적용해 수배와 구속이라는 굴레로 몰아세우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준비모임은 전국연합 등 민족민주진영, 전대협동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치인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20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대책위≫를 발족시키고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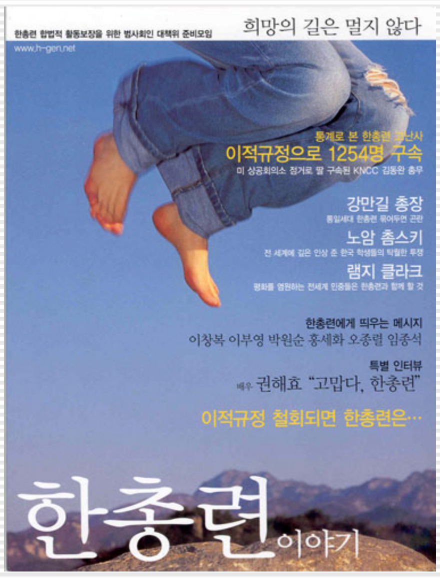
준비모임은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낡은 공안기관의 잣대로 이적성을 운운하며 대학생들의 자치단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유린이며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치적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강위원(31. 5기 한총련 의장) 씨는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운동노선이나 친북시비 때문에 정치적・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범위한 비판적 지성과의 연대를 통해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학생운동이 시대변화에 맞는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그릇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총련도 왜소한 조직논리보다는 이전 운동을 성찰하고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준비모임은 ≪한총련 세대≫라는 홈페이지(http://www.h-gen.net)를 개설해 이적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한총련에 대한 아픈 소리도 담아내고 있다.

한총련 이적규정 과정에 대한 부당함과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총련 이야기≫를 발간했으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규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드러낼 계획이다. 제소는 개인통보제도를 이용하며 원고는 강위원 씨가 된다.



준비모임은 오는 20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대책기구는 ≪한총련 대의원 구속・수배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한총련 이야기≫ 출판 기념식도 가질 예정이다.

지난 7일 준비모임이 발간한 ≪한총련 이야기≫는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과 피해 사례들을 짚어보는 글들의 묶음이다. 하지만 ≪이적단체 규정≫이란 학생운동에 대한 사회적 ≪왕따≫ 현상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한총련에 대한 따끔한 질책들이 녹아 있다.

준비모임은 ≪한총련의 노선과 활동방식에 대한 이러저러한 비판을 떠나 우리 사회가 진정 민주화된 사회라면, 기성세대와 지식인들이 학생운동의 긍정성과 역사성에 조금이라도 주목한다면 한총련에 덧씌워진 이적규정 문제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대응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발간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한총련 이야기≫는 정치인, 변호사, 언론인들의 글을 통해 이적규정 과정과 언론의 96년 연세대 사태 등을 되짚고 이적단체 규정이 ≪한국판 주홍글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총학생회는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합법적인 기구이며 매년 구성원이 바뀐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강령까지 바꿨음에도 여전히 이적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자의적 법해석의 측면이 강하다≫며 국가보안법 철폐없이도 이적규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인터뷰에서 송 의원은 ≪한총련 간부들을 직접 출석시켜 한총련이 과연 이적단체인지 아닌지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나 공청회를 국회 법사위 주최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총련 이야기≫는 이렇듯 97년 이후 겪어야 했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이부영 의원, 정혁백 교수, 손석춘 한겨레 여론매체부장, 한양대 97학번 학생,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다양한 계층의 한총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이 책에서 손석춘 부장은 ≪화석화된 언어로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면서 ≪모든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할 수 있다면 기득권을 버리듯 이름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총련 이야기≫는 이석 씨 치사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김호(97년 서총련 투쟁국장)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락치 논쟁에 앞서 진실한 반성이 필요했다≫고 고백시키고 있다. 그 동안 한총련이 조직논리를 앞세우며 경직된 사고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책에는 10기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 후 한총련,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10대 약속이 실려 있다.

강성관 기자
2002/03/11 오마이뉴스

테러방지법 졸속처리 움직임

국회 정보위가 인권 침해 우려가 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서, 법률 제정시 여론 수렴을 위해 거치도록 한 공청회 마저 생략한 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정보위는 11일 이수일 국가정보원 2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계 인사 2명의 진술과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제정반대 청원을 듣는 것으로 공청회를 대신했다.

국회 정보위의 이런 법안 졸속심의는 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공청회를 피해 의견수렴의 형식적 절차만 밟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덕규 정보위원장은 ≪정보위 회의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진술과 반대 청원을 들은 것≫이라며 ≪애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비해 심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줄여 이제 ≪테러예방≫이라는 상징적 의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보위가 의지만 있다면 공개된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온전한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위가 국회법 조항 뒤에 숨어 졸속심의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보인다.

여야는 12일 민주당 총무경선에서 신임 총무가 선출되는 대로 여야 총무협상을 열어 다음 정보위 회의 날짜를 정할 방침이며,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 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원이 없어 이 법은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대청원을 소개한 김홍신 의원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도 쫓기듯이 심의를 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2002/03/11 인터넷 한겨레

반전반미투쟁과 6.15실천투쟁의 결합에 대하여 (3)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0호)

≪전국민들이여!

미국대통령 부시가 이북에 대한 침략적인 망언을 거듭 늘어놓고 있다.

부시는 얼마전 미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 북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느니 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느니하며 위험천만한 폭언을 쏟아놓았다.

이것이야말로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이북을 모해압살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망언이며 한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 전쟁을 유발하려는 작태가 아닐수 없다.

이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공갈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위협공갈이며 이북에 대한 침략과 공격은 곧 우리 이남민중에 대한 침략이고 공격이다. 따라서 이북에 대한 침략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반도전체의 평화에 대한 파괴로 된다.

이 땅의 각계 국민은 부시의 오만한 악담에 치솟는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저주할 미국때문에 반세기이상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해오고 있다.

이 행성에 오늘 우리 국민과 같이 60년 가까이 미국의 속지에서 치욕을 당하는 예속민족, 재난을 겪고 있는 분열민족은 없다.

미국의 식민지속박과 분단국의 설움을 안고 몸부림치던 우리 국민이기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던 그때 얼마나 격정에 목메어 천하가 동하도록 자주통일만세를 외쳤던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성취할 것을 확약한 6월의 선언은 우리 겨레의 드팀없는 자주통일의지의 포고였고 분출이였다.

그런데 부시정권의 출현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도상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한반도에는 전화의 위험이 엄습해왔다.

대북강경정책을 표방하는 부시의 거듭되는 호전적 망언으로 6월선언과 더불어 하나로 이어져가던 민족의 혈맥은 다시 단절의 아픔으로 퇴보해갔다.

남북간의 대화와 왕래가 진통을 겪고 교류와 협력이 무산되었으며 이산가족들의 상봉마저 암초에 부딪쳤다.

이 격분할 사태앞에서 온 국민은 미국의 횡포에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반미투쟁의 발걸음을 드높여왔다.

그런데 부시가 이번에 또다시 대북선전포고와도 같은 침략적 폭언을 재연하였으니 우리 민중이 어찌 앉아 듣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이 선전포고는 곧 같은 핏줄을 이은 우리 이남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침략도발이다. 더욱이 부시의 망발이 머지않아 있게될 그의 서울행각을 앞두고 발설되었다는데 전국민이 지목하지 않을수 없다.

부시의 서울행각이 분명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호전광의 전쟁행각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미국대통령 부시의 서울행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발이고 우리 국민의 자주통일의지에 대한 유린이며 민족의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고 전제한다.

전국민들이여!

부시의 서울행각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족적 요청이다.

긴박한 현정세는 우리의 전국민이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용약 분기해 반부시반미투쟁에 견결히 나설 것을 바라고 있다.

부시의 서울행각은 곧 민족공멸의 북침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

우리 국민앞에 평화냐 전쟁이냐하는 엄중한 형국이 닥쳐온 이 시각, 우리에게는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방관은 죽음이고 주저는 파멸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고 자주국민으로

➡

광고

구국전선 제471호
주체91(2002)년 3월 11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24회)
한민전문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인 2월16일 경축행사에 관한 공보
보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의 여러 축하단, 대표단 접견 외 8건
집중편집 김정일 위인상
에세이 내다보는 세기
명언해설 애국은 주체이고 주체는 애국이다.
참관기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신
연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제2회)
주체사상학습실
주체의 민족이론 –민족과 계급 –
샘터 통일의 봄
계기 전위조직결성의 고귀한 첫 열매
–통혁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38주년에 부쳐 –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20주년에 부쳐 –
오늘에 다시 보는 마산봉기
민주 부정비리는 근절될 수 없는 한국적 병폐
자주 논평 – 북침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
한민전에 연대성
3대륙인민단결기구 총서기 담화발표
조선민중에게 연대를
국제 전세계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는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북소식 평양대축제장
가사 – 아리랑 대공연 준비훈련장을 찾아서
소개기사 – 시대의 명작 꽃파는 처녀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

[에세이]

내다보는 세기

(새 역사 연구회 정진철)

나는 지난해에 새 세기의 첫태양절을 맞으며 흘러간 20세기를 뒤돌아 보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나간 20세기는 민족사와 인류사의 견지에서 보나 시대 앞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으로 보나 김일성주석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 수 있는 뜻깊은 세기였다.

주체의 햇불로 자주시대를 개척하신 김일성주석은 20세기를 대표하신 희세의 위인이셨다. 그래서 역사는 20세기를 김일성세기로 높이 칭송했다.

이제 21세기는 어떤 세기로 될 것인가. 사람들은 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 세기의 밝은 앞날을 기원해 마지 않는다.

나는 21세기는 사상도 영도도 덕망도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의 존함으로 빛날 세기, 김정일세기로 장식되리라고 확신한다.

21세기를 향도할 사상도 김정일사상이고 이 세기의 발전을 추동할 정치방식도 김정일정치방식이며 새 세기에 인류가 살게 될 세상도 김정일자주세상이다.

살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거족적인 반부시 반미항전에 총분기하자!

침략전쟁의 불길을 안고 기어드는 부시의 범죄적인 전쟁행각을 결사반대 배격하고 그에 준엄한 철퇴를 내리자!

6.15선언의 기치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은 부시의 서울행각을 결단코 저지시키자!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은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반미반부시투쟁과 밀착시켜 벌여나가자!

강점자 약탈자 살인자인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자!

반미반부시투쟁에서의 승패여부는 전국민의 일치단결에 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기업인, 종교인 등 전체 국민들은 계급과 계층, 당파와 정파, 지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인 반미반부시항전으로 민족자주를 성취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자!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전국민이 애국애족과 평화통일의 염원을 반영한 우리의 호소에 전동포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2002 2 3)

≪이회창이 남이 뒤에서 욕하는줄도 모르고 우쭐대면서 미국에 가서 한 짓이란 북미관계개선에 빗장을 지르고 남북대결을 조장시키며 통일을 요원하게 만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회일각에서 이회창의 이번 방미는 철두철미 침략과 매국, 분열을 위한 것이라며 그를 정계에서 즉시 제거해버려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습니까.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바라는 각계 민중은 응어리를 뽑아내야 상처가 아물듯이 이회창과 같은 반민족, 반통일 친미사대매국노를 민족의 족보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반미투쟁과 결부시켜 보다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주둔이 필요하다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구국의소리 2002 1 28)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며 이 땅에서 민족분열과 대결을 끝장내려는 것은 7천만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이자 확고한 결심입니다.

지금 경향 각지에서는 미국과 그에 야합해나선 반통일호전세력들의 전쟁공조책동에 분격한 각계층 민중의 분노의 함성이 줄기차게 터져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간고한 반미자주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하며 이 땅에서 주한미군과 모든 전쟁장비들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합니다. 또한 한국의 현당국자들은 미국과의 전쟁공조책동을 즉시 중지해야하며 동족과의 공조로 6.15공동선언이행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한미간의 전쟁공조책동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소리 2002 1 29)

≪현당국자들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한미공조≫, ≪한일공조≫를 당장 파기하고 민족공조의 길로 나와야 한다.

각계층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모든 것을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복종시키며 반통일세력의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외세와의 ≪공조≫를 당장 중지하라, 구국전선 2002 2 1)

≪앞으로 있게 될 부시의 방한은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극악한 호전광의 전쟁행각,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악독한 반통일행각, 한국을 영원히 속국으로 타고 앉으려는 흉악한 지배자의 침략행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각계에서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반미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온 청산이 초토화되고 민족공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각계 민중은 부시의 방한이 통일을 요원하게 만들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살고 민족이 살기 위해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투쟁을 보다더 강력히 벌여나가야 합니다.≫(사회단체들이 부시의 대북강경망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소리 2002 2 6)

≪온 민족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되고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고 있으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민중은 단호하고 완강한 조국통일투쟁으로 한미공조체제를 분쇄하고 민족공조로 자주적인 조국통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한미공조체제 분쇄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성취하자, 구국전선 2002 2 11)

(내일 계속)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 3대헌장

90년대 통일을 위한 전민족단합의 대헌장 (3)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의 강령을 론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국통일강령선상에서 제시된 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그 10대시정방침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할 근본립장, 근본원칙이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그 10대시정방침은 조국통일의 총적목표이고 면모라 할 수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에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과 같은 범민족통일국가창립을 조국통일의 총적목표로 전민족대단결을 통일의 근본방도로 제시하고 대단결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이로써 조국통일강령은 총체적으로 내용면에서나 구조면에서나 완성된 것으로 발전풍부화된 것이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또한 가장 폭넓고 심도깊은 강령으로서 전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민족단합의 대강인 것이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도 있고 계급의 리익보다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이 더 중요하다는 민족우위, 민족중시의 사상에 바탕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단합할 데 대한 원칙을 밝히고 그 원칙을 일관하게 구현해 오신 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주체적인 민족단합사상을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신 것이였다. 10대강령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창립이라는 각계각층의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는 단결의 목표와 민족구성원 그 누구도 마다할 수 없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대단결의 리념적 기초로 명백히 규제함으로써 민족대단결 실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민족구성원 그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 수 있는 대단결 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말하여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북과 남이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며 북침과 남침, 승고(承共)과 적화(赤化)의 위구를 다같이 가실 데 대한 방도와 북과 남이 경제소유관계가 다르지만 어느 쪽에도 물질적 손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한 것을 비롯하여 북과 남에 꼭같이 리익을 주고 손해를 주는 것이 없도록 한 흠잡을 데 없는 민족대단결 강령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0대강령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각이한 리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전민족대단결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대교향곡이라 할 수 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또한 민족분단의 비극을 가시고 민족의 존엄과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민족사적인 대헌장인 것이다.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단으로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단일민족이 현 세대에 와서 둘로 갈라져 반세기동안이나 나라의 절반땅이 미제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 달나라를 오고가는 20세기 문명시대에 우리 민족만이 나라의통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한 혈육이 생리별을 당한채 서로 오가지도 못하며 민족의 공통성마저 점차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는가 하면 세계의 면전에서 동족간에 대결과 승부를 겨루는 가슴아픈 일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 이상 더 원통한 일이 어데 있는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분단으로 인하여 겪고있는 비운을 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중흥과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여 슬기로운 민족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예로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 제일강산으로 불리워온 3천리 강토에서 세세년년 만복을 누리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의 지상의 요청이며 숙원이다. 전민족대단결의 10대강령은 바로 우리 민족의 이러한 숙원을 풀고 오랜 력사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대로를 열어놓은 통일대강인 것이다.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은 이렇듯 새롭게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의 통일과 장래번영의 대로를 열어놓은 90년대 통일의 기치이며 력사상 가장 폭넓고 심도있는 민족단합의 대헌장(大憲章)이며 조국통일강령을 전일적인 체계와 완성된 구조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 위대한 통일대강인 것이다. (끝)